

하남산단 지하수 발암물질 경고 2년...광주시·광산구 '방치'

수원·하남 1~3지구 TCE·PCE 기준치 수백 배 초과돼 농어촌공사, 정화 작업 등 권고...지자체 '무대책' 일관

광주 최대 규모 산업단지(산단)인 '하남산단'이 공업용수로 쓰는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미 2년 전 발암물질의 위험성을 들어 인근 수원지구 생활용 지하수 관정 사용을 중지토록 요청했음에도, 광주시와 광산구가 여태껏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한국농어촌공사의 '하남산단 지하수·토양 오염 조사 용역' 최종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하남산단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밀 조사에서 지하수

에 포함된 트리클로로에틸렌(TCE)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두 물질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주로 금속 세척, 탈지 작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2020~2023년 하남산단 전역 171개 지점에 지하수 관측정을 설치하고, 657개 시료를 채취한 결과다. 전체 시료에서 TCE는 117개, PCE는 67개 시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역별로는 "ZONE 1-3"에 발암물질 오염이 집중됐다. 1-3구역에서 TCE는 최대 27.982mg/l,

PCE는 최대 5.691mg/l 검출됐다.

법적 공업용수 수질기준은 TCE 0.06mg/l, PCE 0.02mg/l이다. 하지만 두 물질의 검출량은 각각의 기준치보다 466배, 284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1-3구역은 절반 가까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구역의 총 면적은 0.90km², 오염면적은 0.42km²로 전체 면적의 46.7%가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고서는 1-3구역에서 가동되고 있는 레미콘 공장에서 매일 400 t 가량의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어, 발암물질 오염수들이 인근 수원지구의 주거지역 지하수로 유입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주요 오염구역인 1-3구역 외 4-5구역에서도 모두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4구역은

전자제품 제조업체 L사와 H사 등이, 5구역에는 H 전자 2공장 등이 들어섰다.

4구역에서도 TCE는 최대 0.408mg/l, PCE 0.054mg/l이 검출됐다. 기준치 대비 6배,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4구역의 오염면적 비율은 16.1%를 기록했다.

5구역의 발암물질 최대 검출량은 PCE 2.983mg/l, PCE 0.034mg/l로 역시 기준치를 넘어섰으며, 22.9% 면적이 오염됐다.

보고서는 하남산단의 5개 구역 내 금속가공, 전자부품 제조, 도금 등 업체들이 오랜 시간 산업 폐기물과 오염물 등을 누출시켰을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또 일부 업체들은 조사 당시 기준으로 최근까지도 금속가공, 전자부품 제조 등의 세정용 유기용제로 TCE와 PCE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

됐다.

이 밖에 수원지구 관측정 5곳 중 4곳에서도 TCE 최대 0.121mg/l, PCE 최대 0.054mg/l이 검출됐다. 주거지가 많은 수원지구의 경우 생활용수 수질기준이 적용된다. 생활용수 수질기준은 TCE가 0.03mg/l, PCE는 0.01mg/l으로 각 물질별로 기준치의 4~5배를 초과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같은 점을 들어 하남산단의 오염원이 지하수층 오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수원지구 생활용 지하수 관정을 사용 중지하고, 추가 조사 및 정화 작업도 시급하다는 입장을 광주시와 광산구에 전달했지만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서 광주시와 광산구가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영웅 기자 zzang@kwangju.co.kr



태권도·한국 배워요

'2025광주국제태권도아카데미'가 14일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체육관에서 개막했다. 아카데미에 참가한 해외 태권도 수련생들이 품새와 발차기 등 태권도 기본기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아카데미에는 미국, 프랑스 등 8개국 12개 팀 180여 명이 참가해 태권도 기술 연수와 한국문화 체험, 국제 교류 프로그램 등을 함께한다.

/김진수 기자 jeans@

무등산 토끼등 화장실 광주시는 책임 없나?

시 산하기관, 설계 도면 보고 공유재산 사용 승인 내줘 공단 "행정절차 지켰다"...시 "디자인은 확인 대상 아냐"

강기정 광주시장이 최근 자신의 개인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무등산 토끼등 화장실과 관련해 '광주시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영타리로 화장실을 지어놓다니요!' <광주일보 7월 14일 7면>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을 비판하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화장실이 들어선 토끼등 부지가 기존 광주시 소유 땅이었던 데다, 시 산하 수목원정원사업소가 공유재산사용승인을 내줬다는 점에서, 광주시가 꼼꼼하게 살펴주지 못해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화장실 조성을 사실상 허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14일 무등산국립공원관리공단과 수목원정원사업소 등에 따르면 사업소는 지난해 3월 설계 용역 단계부터 국립공원공단에서 제출받은 화장실 조성 공사 도면을 검토한 뒤 공유재산 사용승인을 내줬다.

해당 부지는 광주시 소유 공유지로, 국립공원공단의 요청에 따라 해당 부지 화장실 조성을 위해 지난 5월 소유자가 공단으로 바뀌었다. 광주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공단에 사용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화장실 조성 디자인 등 내용이 전달됐다는 게 공단측 주장이다.

공단은 또 배치도·평면도 등을 지난해 7월

광주시와 동구청에 제출했다고 했다. 건축허가와 토지 매입, 공원계획 변경 승인이라는 3종의 협의 과정을 모두 거치면서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공단측 얘기다.

광주시를 거치는 사전 행정 절차가 진행된 점을 들어 광주시장의 '상의없이 지었다'는 말은 맞지 않다는 게 광주시 안팎의 지적이다.

공단측은 "시설건축물이라도 정식 건축허가가 없이 설치 불가능하며, 모든 행정 절차와 협의가 진행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광주시와 동구는 당시 전달받은 자료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3가지로, 이들 자료만으로는 화장실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어떤 디자인을 갖췄는지 등은 알 수 없었다며 반박하고 있다. 건물 조감도와 입체도면 등은 제출 대상이 아니라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

광주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심의도 '부지 처분'에 한정된 것으로, 건축물의 외형과는 관련 없는 절차"라며 "해당 부지가 광주시 소유일 경우 건축 도면 및 허가 여부 등을 검토했겠지만 처분 이후 공단이 자산을 활용해 입찰 등을 추진한 것이라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전남 가끔 비

광주·전남에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가끔 비가 내릴 전망이다.

14일 광주지방기상청은 "동해상에 자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15일까지 광주·전남에 10~5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16일에는 서쪽의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10~40mm의 비가 내리고, 17~18일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1~23도, 최고 27~30도)과 비슷하겠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윤 정부 임명 여순사건위 위원들 사퇴해야"

여순사건 단체 촉구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단체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위원회(여순사건위원회) 위원들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여수 10·19 범국민연대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3월 윤석열 정부 체제에서 출범한 여순사건위원회는 민간인 위촉직을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채웠다"며 "해당 인사들이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끝까지 역사를 왜곡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여순사건위원회 임기는 이제 1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민주권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오염시켜 놓은 위원회를 새롭게 정비

하고, 중단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소임을 제대로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단체는 뉴라이트 출신으로 지목된 위원 2명의 즉각 사퇴와 함께 14연대와 보도연맹 학살자 명단 공개, 전남·북과 경남 일부 지역 직권조사 확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 소멸시효 배제 등을 촉구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에서 주둔하던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일어났다. 여수·순천·광양·구례·보성 등 전남 일대와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일어난 무력 충돌,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다수 희생됐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73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함께하는 100년 동행

NH **크** **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zgm **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8%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미월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등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